

성적평가방식을 위한 제언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제언

■ 강재성 (인류지리학과군 08학번)

수강 신청을 할 시기가 다가오면 강좌 정보를 얻기 위해 분주해진다.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다. 수강할 강좌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성적평가 방식이다. 교양 강좌들은 상대평가 방식을 통해 성적을 평가한다. 상대평가 방식은 등급별로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점수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받거나 지나치게 가혹하게 받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실력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정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평가 방식은 학부제와 맞물리면서 교양 강좌의 목적과 맞지 않는 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다. 교양 과정은 전공 진입 전에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전공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인기 있는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잘 받아야 한다. 전공 강좌를 듣지 않는 학생들은 교양강좌에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양 강좌를 선택할 때 자신의 관심 보다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강좌를 선호하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는 교양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다.

우선 상대평가제는 교양 강좌에서 비인기 강좌 신청을 더욱 기피하는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비인기 강좌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소형 강좌가 되고 인기 강좌는 초안지를 통해 정원보다도 더 많이 수강하는 대형 강좌가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평가 방식 아래서 소형 강좌는 대형 강좌에 비해 학점을 잘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대형 강좌나 소형 강좌 모두 A학점을 받는 비율은 같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형 강좌는 대형 강좌에 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 더구나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강생 수를 정할 때 버림을 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더욱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된다. 따라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관심분야의 강좌일지라도 소형강좌라면 될 수 있으면 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공 진입을 해야 하는 1학년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핵심교양 강좌의 경우 수강 정원의 10%를 2학년 이상에게 열어준다. 그런데 정원이 제대로 차지 않은 비인기 강좌의 경우 1학년의 비중이 낮아진다. 고학년들과 같은 수업을 듣는 1학년들은 상대평가 방식 아래에서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1학년들은 관심이 있는 강좌를 선택하기 보다는 인기 강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고학년이 많이 듣지 않는 강좌를 선택하려고 한다. 학부제에 따른 전공진입 경쟁 때문에 1학년은 좋은 학점 받기에 더욱 민감하며 고학년이 많은 수업이라면 좋은 성적을 받기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관심 있는 강좌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공 진입을 하기 전에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교양 강좌의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인다.

학부제의 전공진입 경쟁과 맞물리면서 상대평가 방식은 인기 있는 대형 강좌로 수강생을 몰리게 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공진입 경쟁이 심한 학부의 신입생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폭넓은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강좌이지만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정한 상대평가 방식의 장점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학부제라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는 다양한 성적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A-F로 평가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S/U 등의 평가 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번 호 열린지성에서는 다양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 바라는 바를 들어보았다.

성적평가 제도를 위한 제언

■ 고의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6학번) / 송주현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07학번)
기초교육원 소속 멘토링 동아리 UNO

서울대의 성적 평가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그리고 급락평가(S/U 제도)이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상대평가이고, 전공과목이나 영어과목, 상대평가가 힘든 과목 등은 절대평가, 그리고 수업 결과물보다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두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급락평가를 이용한다.

우선 상대평가의 틀에 의하면 A학점을 20-30%, B학점을 30-40%까지만 책정할 수 있다. 그런데 A나 B를 받을 학생의 수가 그 비율보다 적을 경우에는 성적을 더 올려주지 않고, 많을 경우에는 이 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성적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는 학생의 경우에도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A학점을 받을 학생을 B로, B를 받을 학생을 C로 낮추는 등,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상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하는 이런 평가 방식은 별로 진정성이 없다.

그렇다면 절대평가 수업들은 어떨까. 이 수업들은 보통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점을 얼마나 잘 주는지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나, 나쁜 선생님이나를 따지는 기준으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이것이 선생님으로서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몇몇 학생들은 생각만큼 높은 학점을 받지 못하면 이메일과 전화로 성적을 정정해달라고 협박성 요청을 하고, 선생님께 불만을 품고 헐뜯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도록 학점을 잘 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를 악용해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에 비해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급락평가를 이용하는 수업은 더하다. 이 수업은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없으며 급제점을 받는 학생과 낙제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절대평가 수업은 그나마 수업 성취도를 따져 구분을 하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학점 중에서도 좀 더 높은 학점을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한다. 만약 어떤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들보다 훨씬 못했는데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다른 수강생들이 불만을 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성적을 매긴다. 하지만 급락평가 수업에서는 아주 못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수업에 참여하기만 했다면, 누군가 낙제를 받아야 하는데 급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수강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다. 어차피 이 성적은 평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급제를 할 정도의 적당한 선만 유지하고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급제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다른 수강생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수업에서 누군가 낙제점을 받게 된다면 그가 엄청난 불만을 쏟아낼 것이고 뒷감당은 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과목의 특성도 잘 반영하면서 성취도에 따라 정확히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 어디에나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기 힘들다. 성적에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줄 수 있는 학교 당국의 융통성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선생님의 지도력이 뒷받침된다면 지금 있는 제도들도 충분히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 과목 평가방식에 대한 제언

■ 김구슬 (사회대 지리학과 07학번)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공간인 동시에 후학들을 양성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이는 대학교육이 단순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수방법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일부분인 평가방식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양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상당부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를 보고자 하기 보다는 평가시점에서의 성취도만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제2외국어 교양과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특정 외국어에 능통한 학생들과 입문과목을 함께 들으면 해당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목을 수강하면서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식으로 성적처리를 해버리는 현재의 평가 방식은 교수자와 학생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부분을 발전시키고 보완해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리포트 돌려 받기 운동' 과 같이 학생들이 교수님들 혹은 강사님들께 과제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첨삭을 요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수자가 학생들을 대면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자면, 1학년 때 수강했던 '영산문 강독' 에서 택했던 평가방식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강사님께서 기말과제로 글을 제출하게 하신 후에, 학생들이 낸 글에 대해서 한 명 당 10분 정도의 인터뷰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하셨던 것이지요. 이 때 그 강사님은 단순한 표현에서부터 특정한 어구 혹은 문장, 문단이 의미하는 바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학생들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소규모 강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식은 학생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다 쉽게 알아차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치루면서 자신의 과제물에 대해서 자신과는 다른 교수자의 시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각각의 과제물에 대해서 교수자를 포함한 학생 전체가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과제물의 학생이 그 과제물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최종 평가를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인문학 글쓰기' 수업에서 시행된 방식인데, 글을 많이 쓰는 교양과목에 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 평가가 보다 연속적이면서도 상호소통적인 성격을 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국 고대사 논쟁' 과목에서는 잘 써진 레포트를 교수님이 선정하시고 작성자가 앞에 나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이끌어가는 수업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의 평가방식은 현재의 일회적인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교과목과 관련하여 자유주제로 리포트를 써오게 한다면 리포트 주제를 여러 가지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여 쓰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학생들은 수업과 과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학생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의 과제물을 비교해보면서 스스로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가를 수업의 일부로만 여기기보다는 수업 전체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앞으로 교양과목에서의 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수업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방식이 확립될 때 현재의 교양과목 교육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교수자와 학생 모두 보다 나은 수업을 맞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제언

■ 노민정 (인문대학 인문 2)

서울대는 지난 2004년부터 모든 교양과목에 상대평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수강정원의 70%이상에게 A,B학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대학본부는 도입 당시 학점 인플레이 현상 개선과 성적평가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대평가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강화된 지 4년이 흐른 지금도,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응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상대평가방식이 기계적으로 강좌 내 학점 비율을 일정하게 맞추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줄세우는 데 효과적인 방식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1)상대평가방식으로 인해 강의의 질이 개선되었는가 (2)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높아졌는가, (3)이 방식이 정말 본부의 처음 취지에 걸맞는 '형평성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것이다.

2003년 상대평가 강화 전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무처장 김우철 교수는 “강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강의평가와 더불어 상대평가가 반드시 수행돼야 할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즉, 강의의 질 개선은 상대평가와 강의평가가 모두 활발히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강의평가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각 단과대에 강의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위임해 두어 강의평가가 수업의 질 향상보다는 교원들의 인사관리 보조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다. 반면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학점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강의평가보다 상대적으로 큰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상대평가제도가 본래 강화 취지에 걸맞는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교양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형평성있는 방식인지도 의문이다. 학점 경쟁에서 하위 30%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수업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었지만, 그것이 학점을 위한 참여인지, 실제로 교양수업의 개설 취지인 학생들의 지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참여인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상대평가 방식의 부작용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학문의 기초' 강좌 중 제 2 외국어 강좌들은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16~20명 선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2 외국어 초급강좌에는 해당외국어를 특수목적고에서 이미 전공하고 온 학생들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강의구성원간에 수준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에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오히려 성적평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외국어 초보자를 위한 초급강좌에서 진짜 '초보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상대평가의 기계적 적용이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그 형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예이다.

현재 학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적평가방식은 앞서 언급한 상대평가제도와 절대평가, 그리고 S/U제도이다. 현재 수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본 강화 취지에 걸맞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제도가 교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에 적합한 제도로 보인다. 물론 누차 지적되어 온 절대평가제도의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과 소위 '학점 뿌리기'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즉, 평가기준을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하고 교수자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엄정한' 절대평가가 현재의 맹목적인 상대평가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